

신세계 지정학, 한국의 침로(針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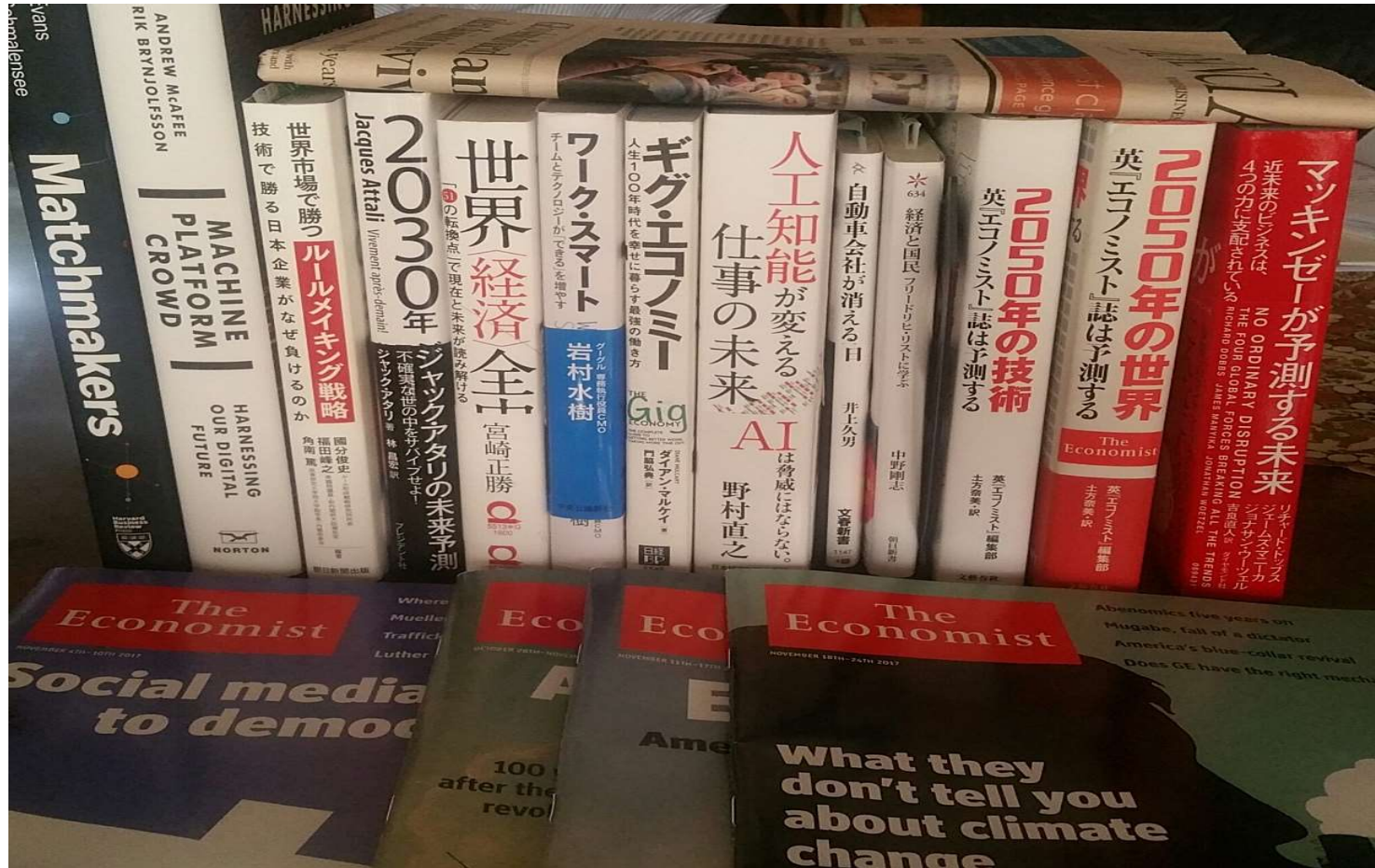


2018.9.7 광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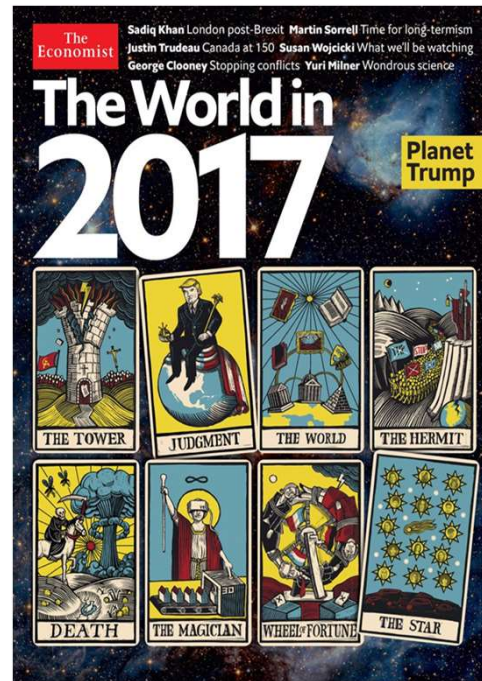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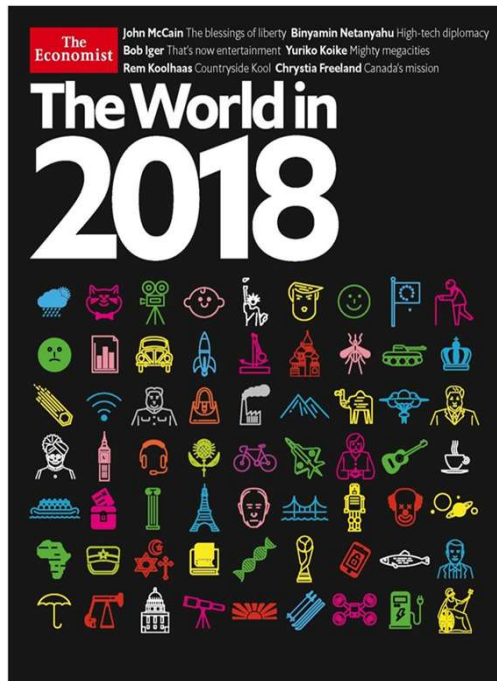
地球儀 정치,경제,외교---



'과학기술사회' 미래보고서들



英 이코노미스트의 키워드



2017년 “ Planet Trump”

- '이상한 해'(정치 리스크 상승과 주가高)
- 트럼프는 누구인가(탈트럼프의 시각)
- 러시아 혁명 100년, 종교개혁 500년

2018년 “The pendulum swings”

- 정치와 시장
- Trumpism vs. Macronisme
- 달한 세계 vs. Pro Globalism



Sep 1st 2018
Enlarge | Contents



Aug 25th 2018
Enlarge | Contents



Aug 18th 2018
Enlarge | Contents



Aug 11th 2018
Enlarge | Contents



Apr 14th 2018
Enlarge | Contents



Apr 7th 2018
Enlarge | Contents



Mar 31st 2018
Enlarge | Contents



Mar 24th 2018
Enlarge | Contents



Aug 4th 2018
Enlarge | Contents



Jul 28th 2018
Enlarge | Contents



Jul 21st 2018
Enlarge | Contents



Jul 14th 2018
Enlarge | Contents



Mar 17th 2018
Enlarge | Contents



Mar 10th 2018
Enlarge | Contents



Mar 3rd 2018
Enlarge | Contents



Feb 24th 2018
Enlarge | Contents



Jul 7th 2018
Enlarge | Contents



Jun 30th 2018
Enlarge | Contents



Jun 23rd 2018
Enlarge | Contents



Jun 16th 2018
Enlarge | Contents



Feb 15th 2018
Enlarge | Contents



Feb 8th 2018
Enlarge | Contents



Feb 3rd 2018
Enlarge | Contents



Jan 27th 2018
Enlarge | Contents



Jun 9th 2018
Enlarge | Contents



Jun 2nd 2018
Enlarge | Contents



May 26th 2018
Enlarge | Contents



May 19th 2018
Enlarge | Contents



Jan 20th 2018
Enlarge | Contents



Jan 11th 2018
Enlarge | Contents



Jan 4th 2018
Enlarge | Contents



May 12th 2018
Enlarge | Contents



May 5th 2018
Enlarge | Contents



Apr 28th 2018
Enlarge | Contents



Apr 21st 2018
Enlarge | Content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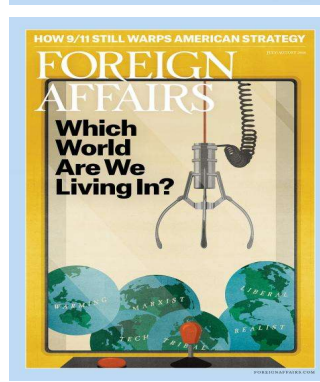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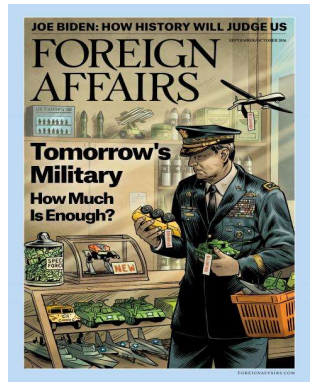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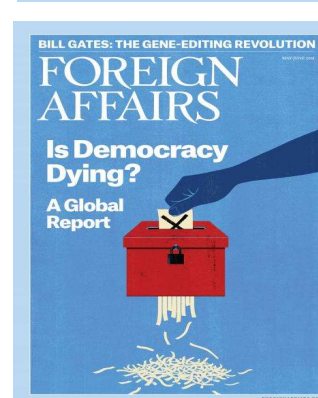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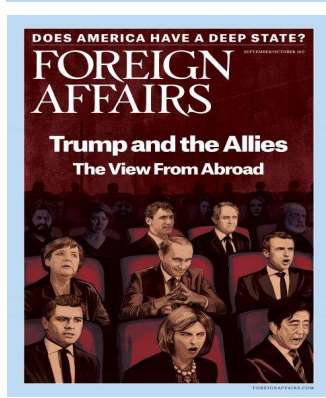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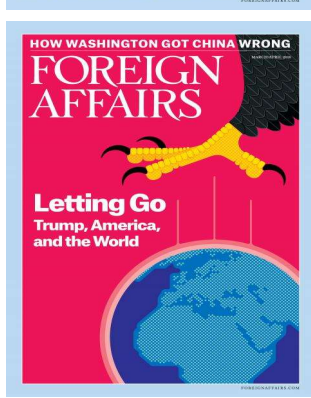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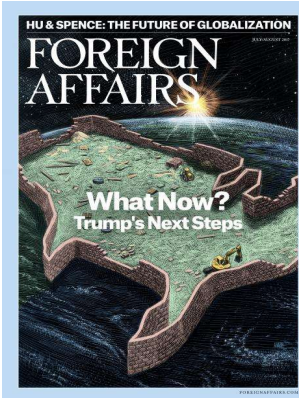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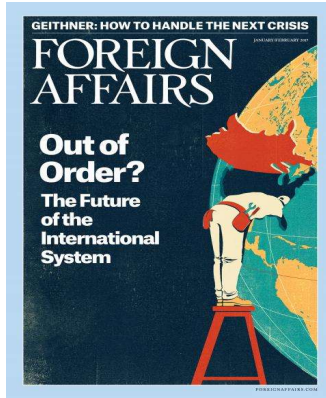


美 포린 어페어즈의 키워드 (7,8/9,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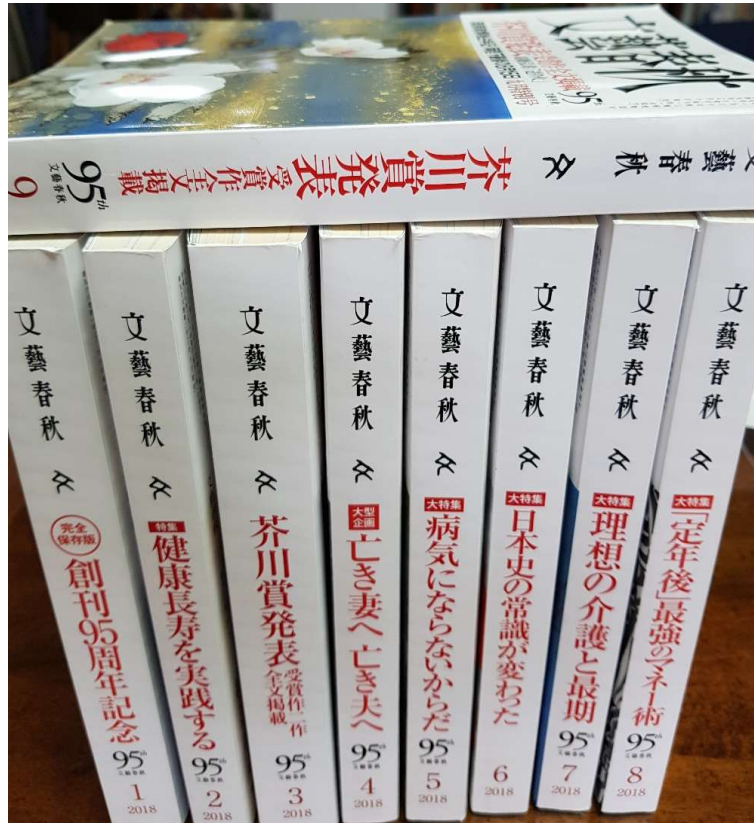
An increasingly turbulent era

- Liberal world
- Tribal world
- Marxist world
- Tech world
- Realist world
- Warming world



?

日 문예춘추의 키워드 (후나바시 요이치)



신세계 지정학

1. 디지털 레닌주의
2. 전략적 아시아 확장
3. 전기자동차 戰國史
4. 電池를 제압하는 곳이 電動을 제압한다
5. 자유로 열려진 인·도태평양(FOIP)
6. 리관유의 기대
7. 2050년의 세계
8.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LIO)의 붕괴
9. ·미중 플라자합의는 있는가

2018년 세계의 톱 리스크



1. China loves a vacuum
2. Accidents
- 3. Global tech cold war**
4. Mexico
5. US-Iran relations
- 6. The erosion of institutions**
7. Protectionism 2.0
8. United Kingdom
9. Identity politics in southern Asia
10. Africa's security

테크노 냉전 – 분열하는 디지털기술개발

-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 전문 컨설팅회사 '유라시아 그룹'이 매년 초 발표하는 「2018세계 10대 리스크」-세계 마켓은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발적인 무력 전쟁의 가능성, 선진국의 리더십 혼미, 신흥국의 권위주의 모델 지속, 전통적 제도의 약화 등의 이른바 「**지정학적인 불황**」이 바로 리스크의 본질.
- 가장 주목을 끈 것은 「**테크노 냉전의 세계적 확대**」이다. 인간 활동의 데이터 집적, 인공지능(AI), 초고속네트워크가 가속적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6년 WEF 에서는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융합하는 「제4차 산업혁명」아래서 제조, 서비스, 금융, 이동, 노동의 개념이 크게 변혁하는 시대의 도래가 예상됐다. **문제는 이 변혁의 플랫폼이 되는 기술이 세계에서 분열하는 방향(=테크노 냉전)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 **테크노 냉전의 제1 영역은 슈퍼컴퓨터, A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한 하드·소프트웨어의 개발경쟁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각국은 프로세서의 연산 성능과 대규모 데이터처리 성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의 슈퍼컴 보유대수는 이미 타국과 큰 격차. 이들 기술 기반이 생명과학, 무인화기술, 차세대 병기개발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제2영역은 IT인프라기술 시장 지배를 둘러싼 경쟁이다.**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의 거대한 IT인프라 수요에 대해 민간인프라(통신기지국·광섬유망·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IT디바이스(PC및 스마트 폰등)의 보급, 정부조달 등에서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세력이 급속히 세어를 늘리고 있다.
- **제3 영역은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이다.** 중국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전자거래, 결제로 중국 소비시장이 단기간에 큰 변혁. 동시에 중국인들의 막대한 소비행동이 빅데이터로 축적되어 새로운 서비스 전개의 기반이 된다. 아마존과 구글이 건들기 어려운 시장이다.
- **테크노 냉전이 어떤 시장리스크와 국가간 대립을 몰고올지, 세계의 파워밸런스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권의 수입제한 조치

1월 태양광 패널과 대형 세탁기에 세이프 가드 발동(통상법 201조)

3/8 철강 · 알루미늄제품에 추가 관세를 지시(통상법232조)

3/22 지재권침해를 이유로 대중 제재 관세를 표명 (통상법 301조)

5/23 자동차 관세 조사를 상무성에 지시 (통상법232조)

6/8-9 G7 샤를르보아 · 서미트에서 EU, 캐나다와 충돌

6/15 대중 추가관세 항목을 공표

7/6 ①대중 관세 340억 달러 분 (25%) 을 발동, 중국측도 보복조치

7월하순 제1회 미일통상협의를 (FFR)

8월 ②대중 나머지 160억 달러 (25%) 를 발동

9월 ③더욱이 2000억달러의 대중 추가관세(10%) 를 실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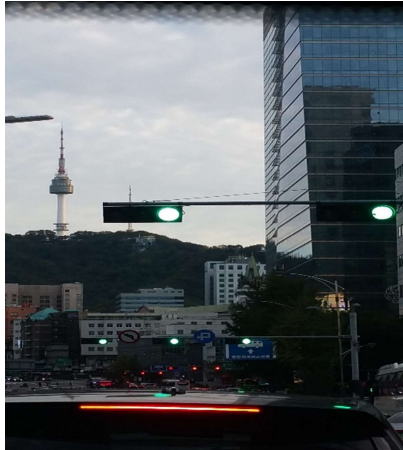
가을 자동차 관세 (25%) 를 실시?

11/6 중간선거

“World Economic Outlook” 타이틀 변천 (IMF)

- 2018.7 "Less Even Expansion, Rising Trade Tensions" (평탄치 않은 모양의 확대, 무역마찰 고조)
- 2018.4 "Cyclical Upswing, Structural Change" (순환적 상승, 구조적 변혁)
- 2018.1 "Brighter Prospects, Optimistic Markets, Challenges Ahead" (밝은 전망, 낙관하는 시장, 도전의 앞날)
- 2017.10 "Seeking Sustainable Growth: Short-Term Recovery, Long-Term Challenges" (지속적인 성장을 찾아 : 단기 회복, 장기곤란)
- 2017.7 "A Firming Recovery" (보다 명확해지는 회복)
- 2017.4 "Gaining Momentum?" (모멘텀이 붙었는가?)
- 2017.1 "A Shifting Global Economic Landscape" (가변적인 세계 경제 전망)
- 2016.10 "Subdued Demand: Symptoms and Remedies" (억압된 수요 : 그 증상과 처방전)
- 2016.7 "Uncertainty in the Aftermath of the U.K. Referendum" (영국민 투표 여파의 불투명성)
- 2016.4 "Too Slow for Too Long" (너무 길고, 너무나 완만히)
- 2016.1 "Subdued Demands, Diminished Expectations" (억압된 수요 : 위축된 기대)
- 2015.10 "Adjusting Lower Commodity Prices" (상품가격 저하로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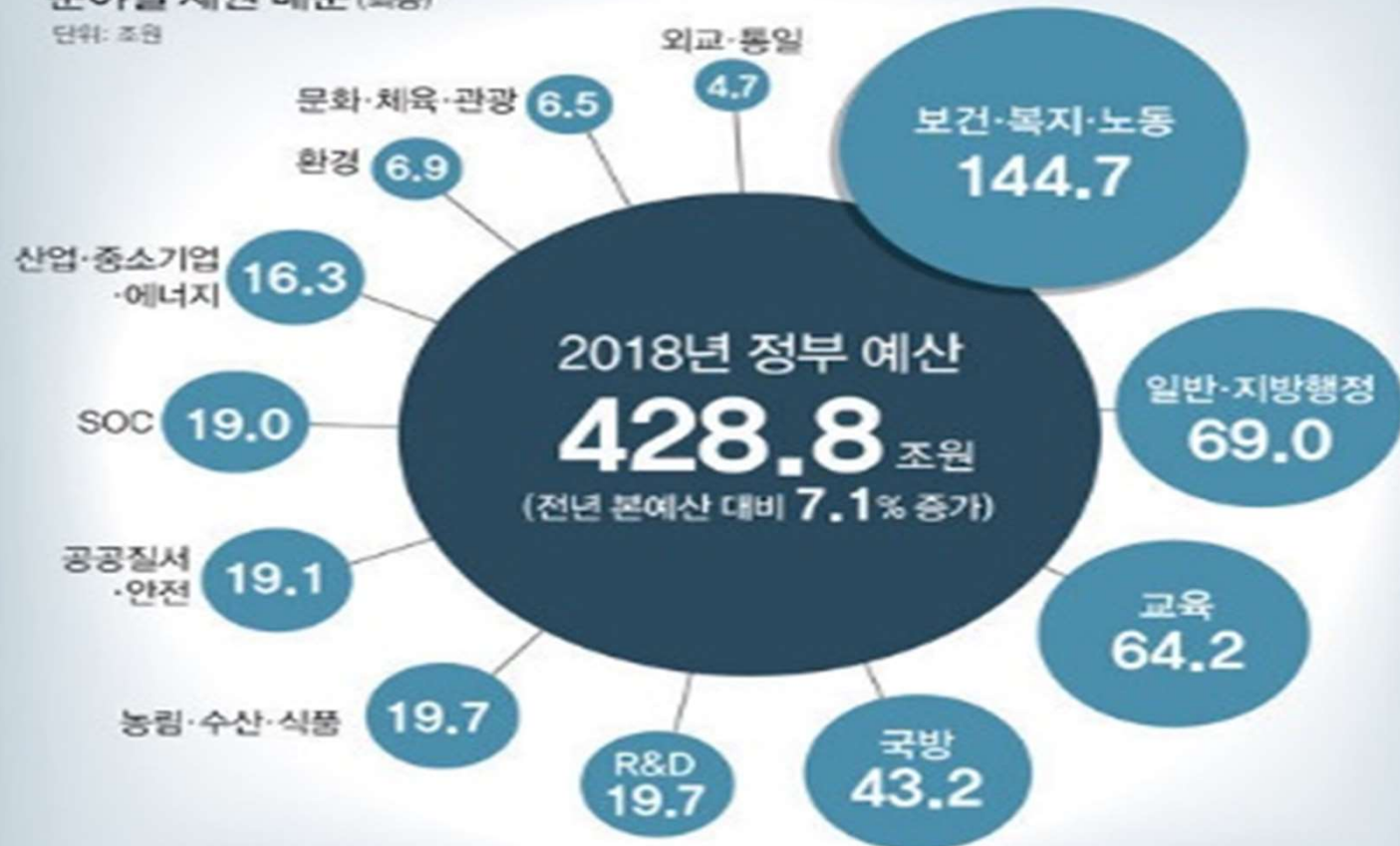
한국의 針路



2018년 정부 예산 어디에 쓰이나

분야별 자원 배분 (최종)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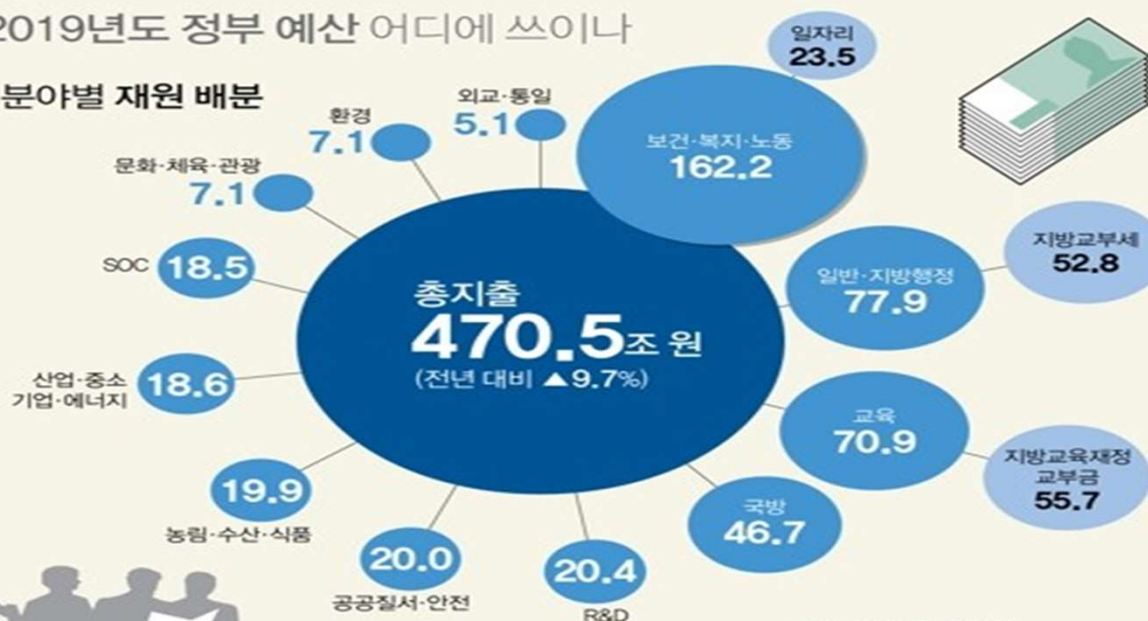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상세한 기사 / 20171206 트위터 @yong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vN1

YONHAP NEWS

2019년도 정부 예산 어디에 쓰이나

분야별 자원 배분



예산 비교 단위 : 조 원



분야별 증감률

단위 : %(전년 대비)



자료/ 기획재정부

* 추경 포함

김포일 기자 / 20180828 / 페이스북 tuneey.kr / 트위터 @yonhap_graph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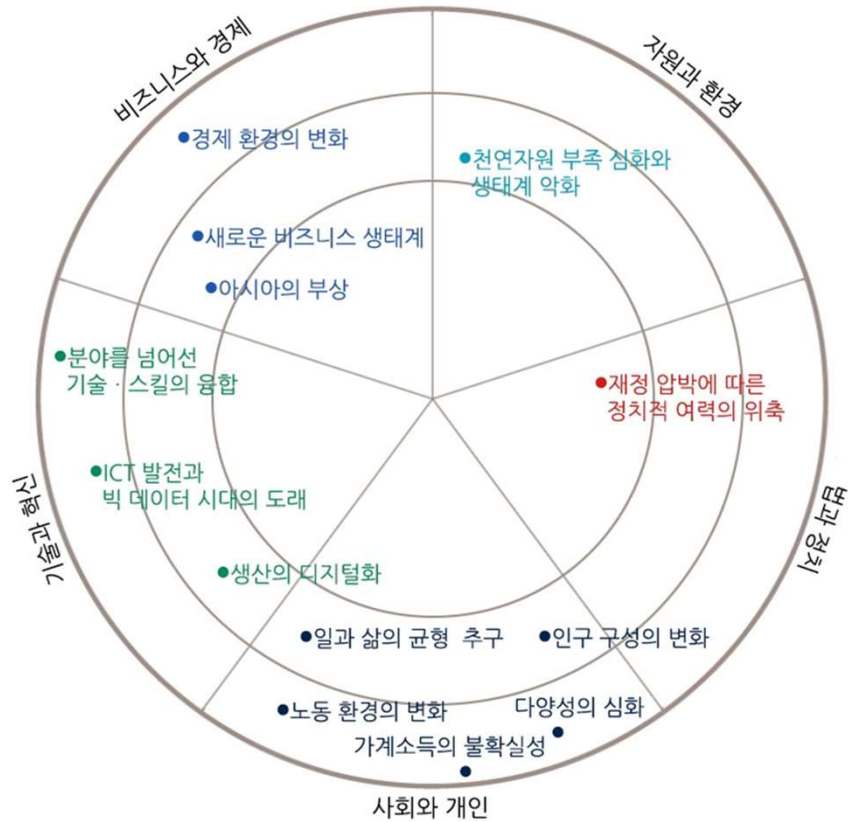
YONHAP NEWS

내년도 예산으로 본 우리의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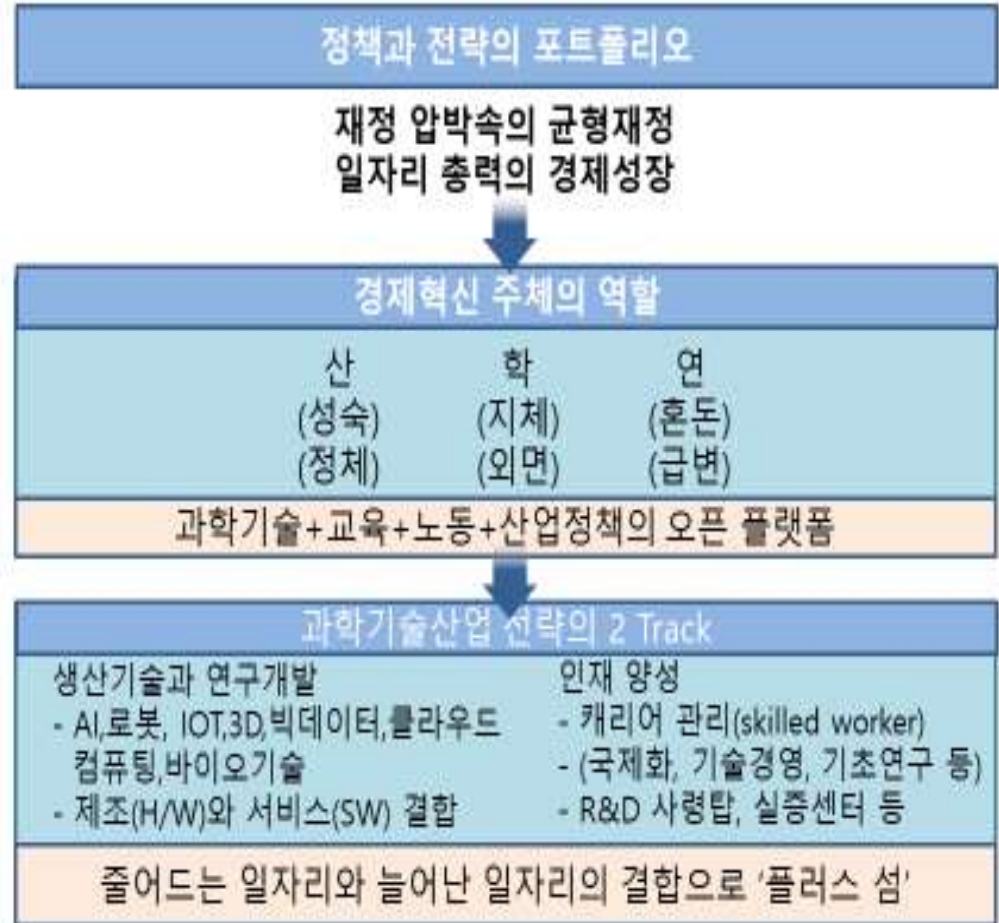
- 예산은 정책의 방향을 화폐량이라는 냉철한 기호로 표시한 것이며, 정치권력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 활동을 이끄는 바로미터
-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분배-균형-미래'로 요약
 - 1) **분배**의 바로미터인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정부 전체 예산의 35% 선. 정부 재정지출 470조5000억원 가운데 의무 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늘고 있는 탓. 국민들은 여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 앞으로 이 예산을 줄이는 것은 어려워 짐.
 - 2) **균형**을 상징하는 **일반·지방행정** 예산; 민선 7기, 내년에 정부예산의 17%에 다가서.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붓물처럼 터져 나오는 포퓰리즘적 사업도 한 몫. 이 분야 예산 증가는 지방의 예산 자립도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됨.
 - 3) 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연구개발** 예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1993년 1조원 벽을 깬 이래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해 2001년 5조원, 2008년 10조원을 넘어서. 그리고 11년 뒤인 2019년에 20조원을 돌파. 2011년부터 연구개발 예산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다가 2016년부터는 1%대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20조원 돌파는 의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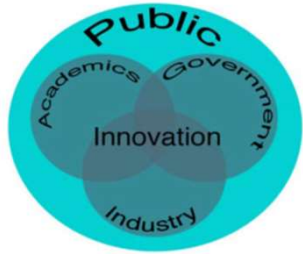
- 향후 전략은?

2030년, 일자리와 스킬에 미치는 13개 트렌드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산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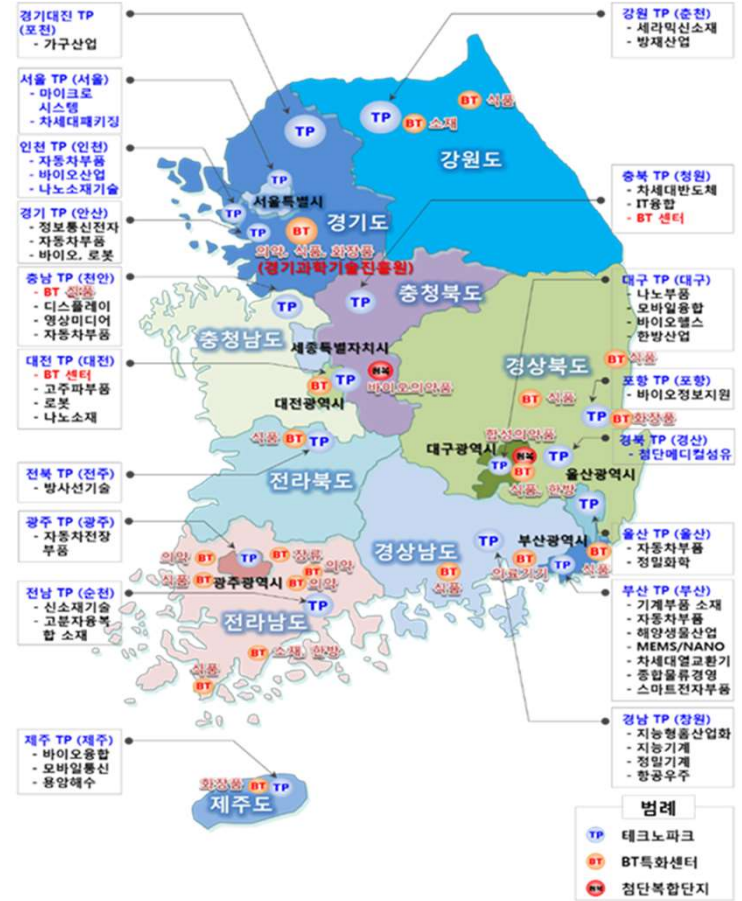




대전환기와 제4차 산업혁명의 맥락

- 제4차 산업혁명과 시대적 전환은 동전의 앞뒤
- IoT, 빅데이터, AI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기술혁신을 제4차산업혁명으로 정의. 우리들 생활과 사회를 크게 바꿀 가능성을 비장. 미국의 거대 IT 플랫폼기업이 세계를 석권하는 가운데 한국이 지금부터의 시대에 세계에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 **플랫폼, 기술의 사회적용, 지적재산제도, 이노베이션 촉진, 인재육성의 5가지 관점에서 한국이 직면한 과제와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각1) 전국 테크노벨트와 클러스터



(시각2) 서울의 첨단 과학기술 클러스터



- Teheran Techno Valley
- Umyeon-dong R&D Special Zone
- Magok Techno Valley
- Yongsan Electronics Market/Venture biz
- Seongsu Techno Valley
- Sangam DMC -HongHap Techno Valley
- Gasan/Guro Venture Park
- Seun Sangga Makers Town

(시각 3) 신 남북시대의 선제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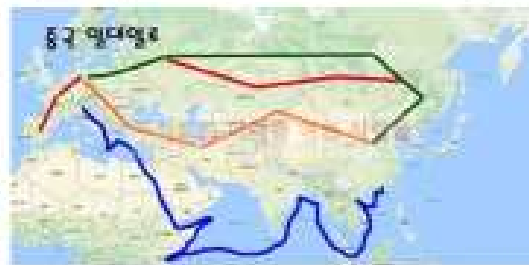
북한은 지금(2018년)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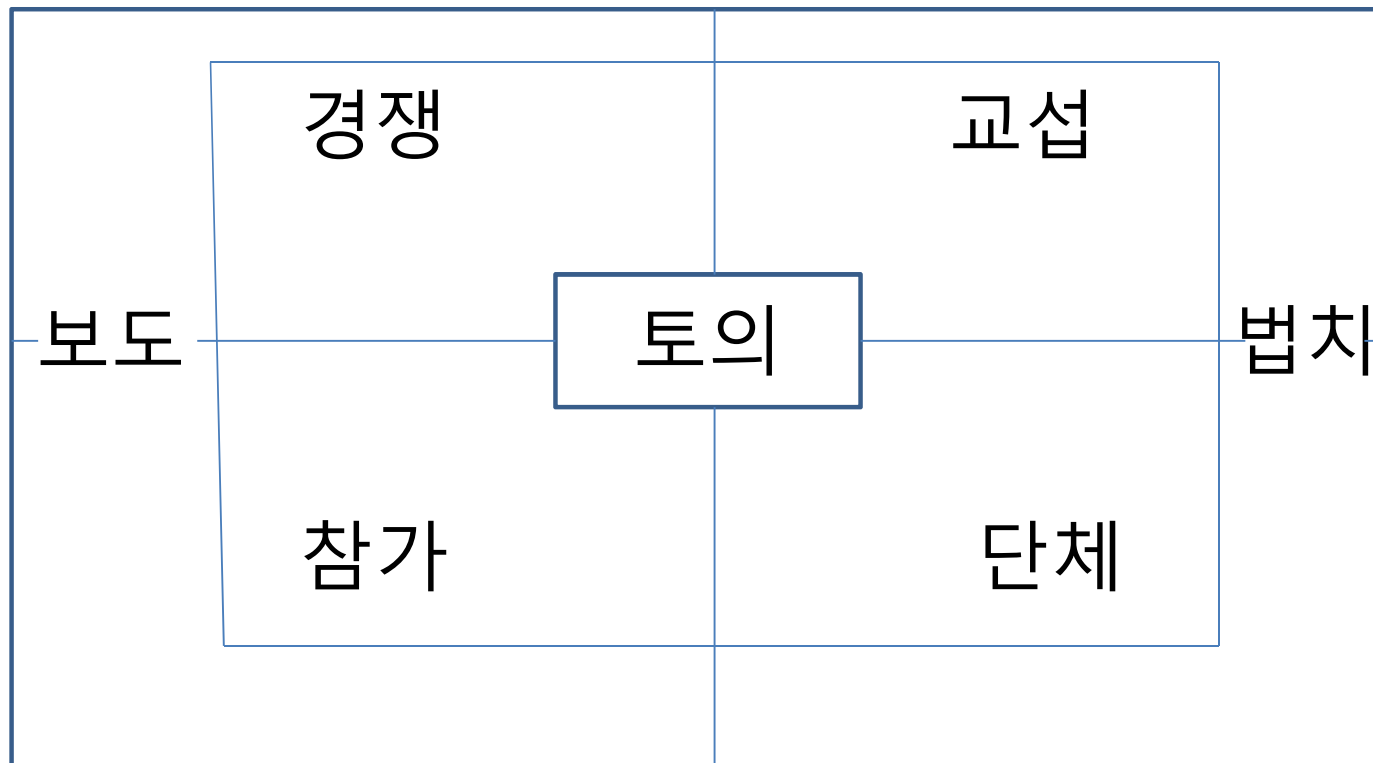
- A unique window to the West in Pyongyang
- Founded and operated by Western donors
- Faculty are outsiders; classes taught in English
- Conceived in 2002, the brainchild of Dr. James Kim
- First class of 200 North Korean students began in 2010
- First graduation in May, 2014
- Some students go to West for graduate programs
- Opportunity for interaction with leaders of tomorrow

(시각4) 4개의 벡터를 주목해야



(시각5) 정책결정의 민주화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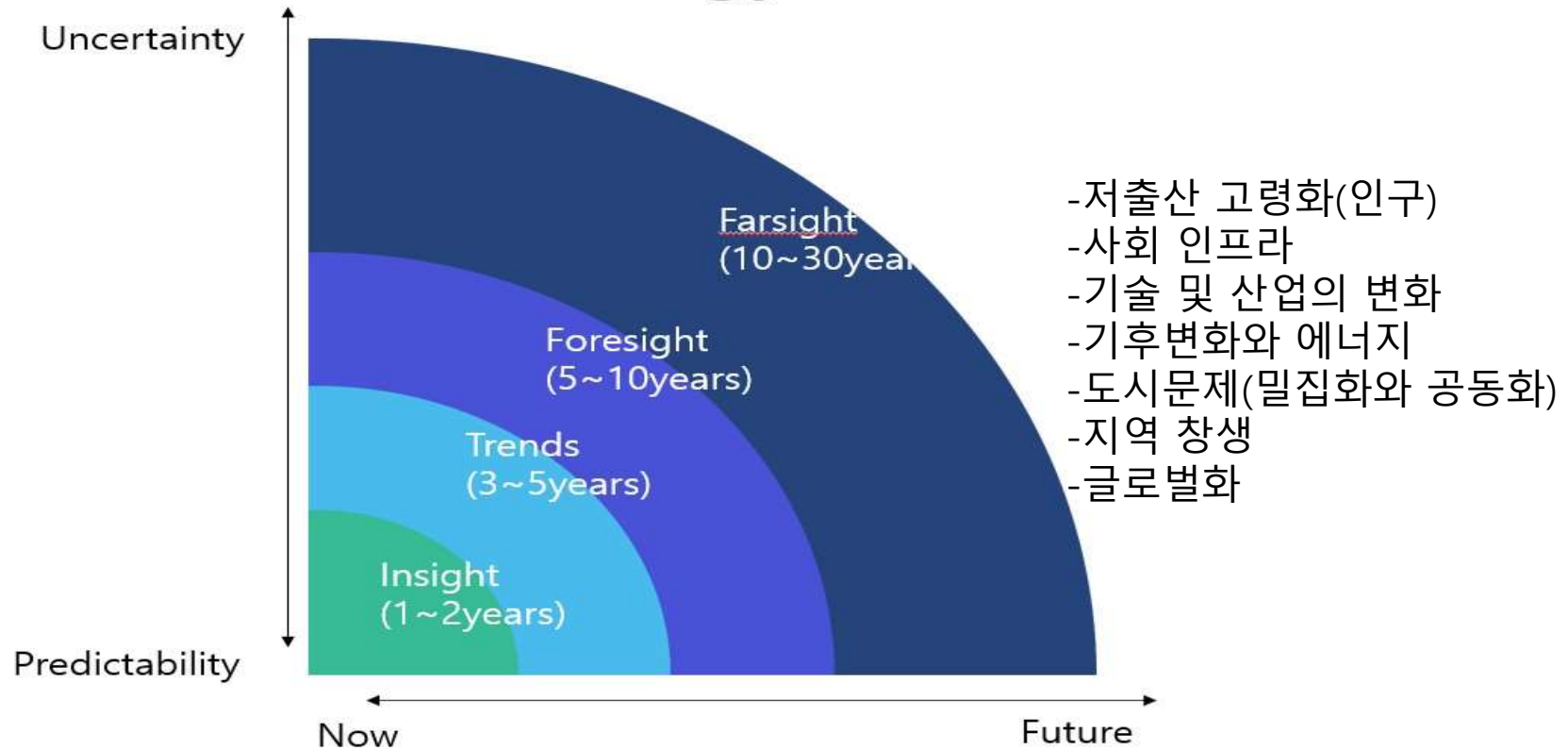
- 경쟁·형교섭형 민주정치, 입헌민주제, 참가민주주의, 민주 코포러티즘, 숙의민주주의, 미디어다원주의



무엇보다도 '튼실한 미래사회 전망'

-좋은 정책결정과 합의 형성의 길

Methodology(미래 예측 방법론)



미래를 향한 비상(飛上)---

